



정읍시관광협의회, 내장산 이안길 걷기·플로깅

정읍시관광협의회(회장 박일)는 15일 내장산에서 조선왕조실록 이안길 걷기 및 플로깅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 김순기 농협정읍시지부장, 이대건 정읍원예농협 조합장, 남상국 순정축협 조합장 등 정읍시관광 14명이 참여해 내장산 이안길을 걸으면서 플로깅 캠페인을 펼쳤다. 한편 내장산 조선왕조실록 이안길은 임진왜란 발발 후 전국의 4대사고에 보관중이던 조선왕조실록 중 유일하게 남은 전주사고의 조선왕조실록을 내장산에 1년간 보관해 지켜낸 것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길이다. 박일 정읍회장은 "이번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해 주신 기관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안길 걷기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문화유산 보존과 함께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순창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등 캠페인 전개

순창소방서는 15일 오전,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대응과 군민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소방차량의 재난 현장 접근성 확보와 더불어 군민들의 양보운전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실제 출동을 통해 도심 내 차량 정체구간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훈련에는 지휘차, 펌프차, 구급차 등 총 5대의 소방차량이 동원되어 전통시장과 소방통로 확보가 필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불시 출동 훈련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자체 방송시설을 활용한 양보운전 홍보 방송과 불조심 페어리드도 병행해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이어진 캠페인에서는 전통시장 및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을 중심으로 피켓, 플래카드, 어깨띠를 활용한 거리 홍보와 함께 전단지지를 시민 및 상가에 배부해 양보운전과 화재 예방 메시지를 전달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김제 용지면 지사협, 가정의 달 맞아 반찬 나눔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병삼)가 15일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내 독거 어르신 및 소외계층 9가구를 대상으로 정성껏 준비한 밑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서 밥을 먹기 어려운 분들에게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밑반찬을 조리해 각 가정에 전달하는 등 맞춤형 복지 활동으로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최병삼 민간위원장은 "매달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함께 해 주는 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들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대학교병원이 어린이병원 2층 완산홀에서 유방암 생존자 통합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북대병원, 유방암 생존자 통합지원 방안 모색

전북대학교병원이 어린이병원 2층 완산홀에서 전북 특별자치도 및 도내 시군 보건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유방암 생존자 통합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대병원 이 수행 중인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과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암 치료 이후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환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워크숍에는 도내 보건소, 보건의료원,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센터 등 22개 기관에서 실무자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안하립 교수(유방갑상선외과)의 '유방암 치료와 관리 △원우회 교수(재활외과)의 '립프부종 관리' △박영심 물리치료사의 '상지립프부종 마사지 이론 및 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특히 치료 이후의 삶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암생존자 건강관리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양종철 병원장은 "암 치료 이후에도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실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전북대병원은 암생존자통합지지서비스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진안-부안 자원봉사센터,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탁식 개최

진안군자원봉사센터와 부안군자원봉사센터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각각 100만원씩을 기부하며 지역 간 연대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15일, 부안군자원봉사센터 정흥귀 센터장과 이준한 사무국장을 비롯한 부안 관계자들이 진안군을 직접 방문해 기탁식을 진행했다. 이번 만남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두 지역 간 상생 협력의 의미를 한층 더 깊이 다지는 계기가 됐다. 이날 기부는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와 (사)부안군자원봉사센터 임원 및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으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상호 연대의 마음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갔다. 특히 진안군과 부안군은 사회단체, 농촌지도자회, 공무원 등 다양한 단원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탁하며 지역 간 유대와 상생의 모범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정흥귀 부안군자원봉사센터장은 "부안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을 진안군과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간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체 정신을 실현하는 실질적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진춘성 군수는 "자원봉사의 참된 의미를 행동으로 보여 주신 부안군 자원봉사센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에 충실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21회 진안고원운장산 고로쇠 축제 결산총회

진안군 '진안고원운장산고로쇠' 축제위원회는 15일 주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제21회 진안고원운장산 고로쇠 축제 결산총회를 개최했다. 축제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올해 축제 결과와 성과에 대한 결산보고를 갖고 향후 고로쇠 축제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지난 3월 8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제21회 진안고원운장산 고로쇠 축제는 고로쇠를 활용한 이색 체험 프로그램과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공연을 구성하여 현장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농가들의 고로쇠 수확과 농특산물도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 청정 진안의 생태건강치유도시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작은마을축제 최우수 축제'로 선정돼 진안군의 특색있는 마을축제로 육성되어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 남귀현 축제 위원장은 "진안군을 대표하고 전북을 대표하는 우리 축제의 영예와 큰 책임을 안고 내년 축제 준비에도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 금동, '오늘은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추진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는 금동 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늘은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장날(4일, 9일)에는 전 직원이 시장에서 점심 및 장보기를 추진, 관내 소상공인들을 찾아 경영 환경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실천 중이다. 또한,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행정 사항 및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김봉래 동장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며, 1일 1 상가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주민들에게는 지역 경제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금구면, 영농철 농촌 일손 돕기에 구슬땀

김제시 금구면 행정복지센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벼농사 재배 농가를 방문해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도와 적기 영농을 실현하고 농가에 활력을 더했다고 밝혔다. 15일 이승곤 금구면장을 비롯해 8여 명의 직원들은 농번기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주 일손을 돕기 위해 미숙한 손길이지만 벼농사 열매 숙기 등 농가일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 면장은 "농촌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영농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서 지역 농가의 노고를 덜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인후지사 246-6655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심천지사 010-2333-4791 송전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필북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서신지사 272-941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호지지사 010-6645-9935 익산지사 659-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